

성기선 '공교육 신뢰 회복' vs 임태희 '1인 1스마트기기 지급'



성기선 후보 5대공약

- 코로나19 후유증 극복
- 공교육 신뢰 회복
-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 강화
- 미래를 담는 혁신교육
- 사교육비 부담 덜어 교육

임태희 후보 5대공약

- 카페테리아 급식
- 방과 후 건강간식 무상제공
- DQ(Digital Quotient)역량 강화
- 1사·군당 교육지원청
- 1인 1스마트기기 지급



진보 성기선·보수 임태희의 민선 5기 경기교육감 후보 5대 공약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교육의 4년을 책임질 경기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진보 단일화를 이룬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보수진영에서는 임태희 전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이 출마했다.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일산 MBC 스튜디오에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진보·보수 맞대결을 펼칠 두 후보는 진보교육감 13년의 수성·탈환을 놓고 상반된 5대 공약을 내놓았다. 경기신문은 토론회에 앞서 두 후보의 5대 공약을 미리 살펴봤다.

성 후보는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을, 임 후보는 '경기도 카페테리아 급식'을 각각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성 후보는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취임 직후부터 1년간 학생, 학부모, 교사의 후유증을 신속히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후유증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회복 지원 강화, 회복 집중 기간 운영 등을 약속했다.

반면 임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성장기 학생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교급별 카페테리아, 즉 자율배식 급식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 식생활교육 체험관, 통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 성 후보는 '공교육 신뢰 회복'에, 임 후보는 '방과 후 건강간식 무상제공'에 중점을 뒀다.

성 후보는 "공교육이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기초학력 진단교사 배치 등을 공약했다.

임 후보는 "유치원 원아의 건강한 급·간식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기업 창업 지원을 통해 방과 후 유치원 원아의 건강 간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공약으로 성 후보는 '기본 교육'을, 임 후보는 'DQ(DQ·Digital Quotient)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성 후보는 "기본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갈 삶의 힘을 키우겠다"며 "특히 진로교육을 일회성 체험에서 벗어나 학생 진로 프로젝트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에듀테크를 실제 학교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별도의 팀(가칭 미래교육부)을 신설하고 미래교육 에듀테크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로 나아갈수록 더 견고한 내면과 성품을 지닌 인재로 키울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의 기본은 인성교육"이라고 덧붙였다.

네 번째 공약으로 성 후보는 "혁신교육을 통해 미래교육을 선도하겠다"며 "미래학교 설립, 경기도형 미래네트워크 도입, 마을형 혁신학교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어 "꿈의학교를 확대하고 학점 인정제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임 후보는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지원청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1사·군당 1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시스템의 현실성·편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행정 강화로 지원청과 학교 지역 간 소통·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성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을, 임 후보는 '1인 1스마트기기 지급'을 강조했다.

성 후보는 "AI-에듀테크를 기반으로 사교육 걱정없는 학습환경을 구축하겠다"며 "AI-메타버스, AI-튜터, AI 기반 학습코칭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1인 1스마트기기 지급과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책가방 없는 학교생활을 만들겠다"며 "4차산업 핵심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는 "AI(인공지능) 튜터링과 지역의 대학생, 전문가, 학부모의 손길을 빌려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며 "학생이 활용하게 될 1인 1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흥미 분야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접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한전, 한충전 매각... 현대차, 車충전 시장 독주

(한국전기차충전)

전국 1만여 운영, 요금 인상 가능성↑ 현대차 등 대기업, 충전 시장 격돌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난 해소를 위해 보유 주식 정리를 공식화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시장 독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한전은 8조원에 육박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일부와 한국전기차충전(이하 한충전)의 지분을 즉시 매각하고 한전KDN 등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정부와 협의해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전이 매각할 한충전은 전기차충전 서비스를 전담하는 기업으로, 한전이 지분을 매각하면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충전 사업 입지가 넓어져 시장 독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설립한 한충전은 국내 첫 민간 충전서비스 사업자다. 당시 한전 지분 28%를 비롯해 KT(24%), 현대차(19.4%), 기아(9.6%) 등

이 주주로 구성돼 있다. 자본금은 120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3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한충전은 현대자동차가 30.04%, 기아 20.05%, 한전 17.5%, 디스플레이 17.44%, KT 14.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충전사업소는 전국에서 민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전기차충전 요금에 일제히 상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 이외에도 한화(한화큐셀), LS그룹, GS에너지까지 국내 전기차 충전사업에 민간 기업이 진출해 각축전이 예고된다.

GS에너지는 지난해 국내 충전사업자 지엔텔의 지분을 인수하고 충전서비스 합작사를 설립, GS유소를 거점으로 하는 급속 충전사업과 지엔텔의 완속충전 인프라를 합쳐 충전 사업을 펼치고 있다.

LS그룹은 지난해 EV 충전 신규 법인인 LS E-Link(엘에이링크)를 E1과 공동 투자해 설립하고 전기차충전 사업에 나섰다. 이르면 7월 5면에서 계속

16 특집 | 취임 2주년 맞은
원명희 군포도시공사 사장

경기도청이 광고 신청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경기도청 광고 신청사 이전
4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순차적 이전
※ 5월 30일부터 모든 사무는 신청사에서

열린민원실 민원창구 운영 (4.18일부터)
현청사, 신청사 병행 운영(4.18~5.27)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는 신청사에서만 가능

경기도청 광고 신청사 오시는 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지하철 이용 시 신분당선 광고중앙역 3번 출구에서 317m
버스 이용 시 광고중앙(아주대)역 환승센터 정류장 하차(지하 1층)

경기도 콜센터 031-120 홈페이지 https://www.gg.go.kr